

# 여야 총선 공천 '태풍의 눈' 공심위

### 한, 오늘 중 윤곽...위원장에 윤여준·인명진씨 등 거론 민, 이달말 공천기준·방식 확정...호남 물갈이 폭 관심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인 4월 총선 공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 지도부 모두 공천개혁을 공언하고 있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공천심사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이르면 25일 공심위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심위는 11~15명으로 구성되며, 공심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 유리위원장을 역임한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가 우선 거론된다. 여기에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통하는 법륜 스님, 보수성향의 원로학자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새 지도부를 구성한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민주통합당도 조만간 총선 기획단을 발족해 총선전략과 공천 일정을 짜는 등 공천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은 임종

석 사무총장이나 당내 중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심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천기준과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심위는 내·외부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심위원장은 당내 인사가 맡을 가능성과 함께 개혁공천의 취지를 살려 명망 있고 참신한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야는 국민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복식시키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나설 것으로 보여 당내 계파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토대로 하위 25%를 공천에서 일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통합당도 국민참여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하려는 원칙 아래 세부 공천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은 호남 물갈이 비율이다.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탈(脫)호남을 선언한 상황에서 그 폭이 커질 공산이 다분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런던올림픽 대표선수단이 훈련중인 태릉선수촌을 방문, 남희희 등 올림픽대표선수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 청운복지원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당 대표 폐지...중앙당 전국위체제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정당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쇄신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구조 개편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중앙당은 폐지" 아니라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고, 전국위 체제의 중앙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당원·국민과의 소통 및 지변화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통합, 이용득·남윤인순씨 최고위원 선임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최근 이용득(59) 한국노총 위원장과 남윤인순(54) 내거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지명해 최고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새 민주당 출신은 6명, 시민사회·노동단체 출신은 3명이 최고위

원직을 맡게 됐다.

이 최고위원과 남윤 최고위원은 각각 노동과 여성 몫으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이상호 전 의원을 전략홍보본부장에, 김기식 내거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통합 '돈 전대' 뒤숭숭

### '예비경선 금품수수 의혹' 제기 KBS에 확인 요청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 '돈 부투'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초 모 인터넷 언론사가 전당대회 돈 부투 제공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KBS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과정에 금품이 오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KBS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치러진 예비경선 당시, 선거현장 입구 화장실에서 돈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모 후보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돌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당시 투표권자가 중앙위원인데 대의원에게 돈을 돌렸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KBS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공식 요청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2월 26일 예비경선 당일 돈부투가 오간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KBS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종석 사무총장은 "만약 하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엄정하고 분명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의 돈 부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0일 예비경선이 치러졌던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4·11 총선·보선 현장

### 양형일·박주선, 관권 선거 공방

양형일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방송보도에 따르면 최근 화순의 모 식당에 광주 동구청 소속 13개 동장 전원이 모였고, 이 자리에는 동구청장과 4월 총선 출마예정자인 박주선 의원도 참석했다"며 "박 의원은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참여한 일부 동장들은 '자신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예비후보 측은 "이는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선거를 기도한 의혹이 명백한 회합"이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동구청장도 관권선거 기도를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해당 음식점에 갔다가 우연히 공무원들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의도된 모임이 아닌 단순 해프닝을 관권선거 의혹으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 전정배, 서울 동작 을 출마

민주통합당 전정배 의원은 24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동작을에서 출마해 정몽준 전 대표와 한관 승부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가장 센 인물과 맞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정 전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며 "동작에서 승리해 수도권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단원군이 지역구인 4선의 전 의원은 지난 해 8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19대 총선에서 안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병훈 "한옥 게스트 주택 조성"을

이병훈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 문화전당이 완공되면 동구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이라며 "방문객들을 위한 한옥 게스트 하우스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세계적인 문화시설인 영국 테이트모던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에는 연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온다"며 "문화전당을 보기 위해 연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광주 동구에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 문화를 담은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후한 구도심 한옥들의 원형을 살려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게스트하우스 단지로 조성해 외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현모 "KTX 광주역 정치해야"

임현모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24일 광주역에서 귀성객 환송 인사를 통해 "광주역 KTX 통과 폐지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KTX 통과 광주역을 폐지하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광주역이 전국 4대 도시의 한 축임을 간과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광주역 KTX 통과는 북구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이는 광주 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석형 후원회 사무소 개소 성황

이석형 민주통합당 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의 후원회 개소식이 지난 20일 장성을 영천로 사무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성군 부군수와 전남도청 농정국장을 역임한 김용준 후원회장, 농업관련 연합회 회장, 전 군수, 군의회 의장, 의원과 사회단체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용준 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킬 파수꾼이자 한미 FTA에 온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예비후보"라고 강조했다.

### 김재두, 양당 대표에 공개 서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쟁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며 중앙당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재두 예비후보는 24일 "농촌지역 선거구를 통해 합치키면 농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애질 것"이라며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김 후보는 "농촌은 인구감소로 선거구가 한번 줄어들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농촌지역 선거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 제도를 개혁해야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번에는 선거구 확정과정에서 농촌지역 선거구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정인, 순천시시장 보선 출마 선언

허정인 전남도 정부특별보좌관이 오는 4월 순천시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19일 사직원을 제출했다.

허 후보는 "순천시역 동·노간, 신도심·원도심간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허 후보는 26일 오후 2시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순천 출신인 허 후보는 전남도의회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2009년 전남도 정책보좌관, 2010년부터는 정부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해 왔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1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수강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분) ② 입학금 : 50,000원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혜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리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여성가족부 인정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모집대상 <각 향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인직역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라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